

# 고속철 준비는 완행... 개통효과 이미 물 건너갔다

## 승정역 신역사 내일 업무 개시

이용객 3배... 연계교통 영망  
2013년 건립 협약 환승센터  
부지 문제 착공 못하고 표류

17일부터 광주 승정역 신역사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용객 편의를 위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KTX개통 효과는커녕 시민의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광주시와 코레일 등 관련기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역사만 덩그러니...대중교통 영망 = KTX호남선 개통 이후 승정역사의 이용객은 최소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객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타고 승정역사를 오가고 있다는 점에서 늘어나는 이용객을 대비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광주역을 이용했던 동구와 북구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KTX를 타기 위해서 승정역으로 이동해야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교통 배려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의 대중교통 연계 대책은 고차 상무 22번 노선 신설과 마을버스 2개 노선, 공학버스 등의 노선연장 뿐이다. 여기에 승정역에서 전남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현재까지 전무하다.

결국 전남권 승객이 KTX를 타고 서울~광주를 1시간33분 만에 오더라도 광전동버스터미널로 다시 이동해야해 KTX의 가장 큰 장점인 시간단축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승정역 인근에 전



광주승정역 신역사의 공식 업무 개시일을 이틀 앞둔 15일 코레일직 직원들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남 서부권을 오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지만, 버스회사측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버스만 배차할 가능성도 커 '생색내기식' 대책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승정복합환승센터 표류 = 승정역세권 개발의 중심은 단연 승정역복합환승센터다. 승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자인 (주)서희건설 컨소시엄(승정 라미타워)은 지난 2013년 광주시와 오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2300억원을 투자, 총 부지면적 2만2000㎡에 지하 3층~지상 11층(전체면

적 12만2000㎡)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센터에는 환승터미널을 비롯한 주차장, 비즈니스 호텔(150실), 영화관, 상업·유통(대형마트) 판매시설, 문화·관광·업무시설 등이 설치돼 이용객의 편의증진은 물론 KTX호남선의 거점역이자 서남권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때문에 승정역 주변의 땅값까지 들쭉였다.

하지만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던 환승센터는 부지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사업자인 서희건설측은 30년 동안 점사용 허가를 받아 환승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기부채납할 계획이었지만, 땅 주인인 코레일측은 매각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실상 '을'의 위치인 서희건설측은 고민 끝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하기로 했지만, 코레일은 민간업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경쟁입찰에서 다른 곳이 부지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로 절충안으로 광주시가 부지를 매입해 서희건설에 매입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광주시가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는 업체를 대신해 매입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복합환승센터는 승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법적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오는 4월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공공기관 을 신규채용 1만7000명

작년보다 2.9% 증가  
고졸·지역인재 늘려

올해 공공기관에서 1만7000여명이 신규로 채용된다. 이 가운데 2000여명이 고졸자로 신규채용되고 지역인재 채용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관 302개의 올해 신규채용 목표 인원은 1만7187명으로, 전년보다 2.9% 늘어났다. 또 정부는 고졸채용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채용 권고비율(20%)의 이행을 점검해 전년보다 7.3% 늘어난 2075명의 고졸자가 신규채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졸자의 조직 내 정착을 위한 승진·교육훈련·진학 제도 등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3604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인 채용경쟁 인턴제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인턴으로 근무하는 데도 채용되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턴기간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4~5개월에서 2~5개월로 조정했다.

지역인재 채용의 경우 비수도권 인재 채용권고비율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30%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지방이전기관의 경우 기관별 실정에 맞는 채용우대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로 조기취업자와 경력직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미룬 채 과도한 스펙쌓기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조기취업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및 전환 규모도 신규채용 규모의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시간선택제 반영을 강화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전환 대상은 5197명이다.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2016년부터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정원의 5% 내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호남고속철 217곳 지반 침하...광주 차량기지 5.6cm 가장 심해

## 작년 말부터 보수공사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일부 구간에서 지반 침하(沈下) 현상이 발견돼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최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준비 및 동공 노반 현황 보고' 자료를 인용, 호남고속철도 182.3km(오송-광주) 구간 중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곳은 상·하행선 29km, 217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체 구간의 약 16%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난 것이다.

특히 허용 잔류침하량 3cm를 넘는 곳이 23곳이나 됐으며 지반침하량이 가장

심한 곳은 5.6cm로 대립산업이 시공한 광주 차량기지 200m 구간이었다. 또 ▲쌍용건설이 시공한 전북 익산 215m 구간(4.1cm) ▲롯데건설이 시공한 충남 공주 57m 구간(3.6cm) ▲삼성물산이 시공한 전북 정읍 130m 구간(3.5cm)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전북 김제 180m 구간(3.8cm) 등에서 침하 현상이 발견됐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산) 공사 당시에도 지반 침하 현상이 88곳 발견됐지만, 호남고속철도는 연약 지반이 많은 평야 지역을 통과해 침하 현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여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작년 말부터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침하 정도가 심한 18곳은 '노반층 그라우팅공법(레일을 받치는 콘크리트 궤도에 구멍을 뚫고 궤도 밑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수 공사를 했고, 나머지 199곳은 강철 판이나 패드를 레일 아래에 받치는 방식으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는 KTX 시운전 시간을 피해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고속철도의 경우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작은 오차가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 있어 확실한 보수와 보강공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용산~익산 KTX, 광주역까지 연장해 달라

## 지역 국회의원들 요구서 전달

지난 5일 최종 확정된 호남고속철도 운영계획 중 용산에서 서대천역을 경유해 익산까지만 운행하는 KTX 노선을 광주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과 이기호 의원(당양·함평·영광·장성)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과 이 의원을 비롯한 전북, 대전 일부 국회의원들이 용산~익산을 오가는 KTX 18편(1일)을 광주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서를 16일 오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요구서안에는 대전의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 박병계 의원(대전 서구 을), 전북의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시·완주군) 등이 동참한다.

이들 의원은 요구서안에 "대전·충남과 호남 간 고속철도가 끊어지면 지역 단절과 이용객의 환승 불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전북 익산까지만 운행할 게 될 서대천역 경우 판을 광주역까지 연장해 이용객 편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역의 일일 KTX 이용객은 3572명으로 호남 최대 규모이다. 김제, 장성역 등의 운행도 일방적으로 중지하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3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용산역~광주역 구간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09:00~20:00(연휴무))

**[무안출발] 설날 연휴 마카오 전세기**

항공 에어 마카오 (NX 항공)

출발일 2월 19일 (목), 2월 22일 (일)

일 정 2박 4일 일정

**이태리 VS 발리**

하너투어 단독 허가 포시즌 풀빌라 내 스낵촬영!

하너투어 단독 허가 스낵촬영 2시간 공동 포함!

**하나투어프리미엄 로드샵에서 추천하는 허니문 상품**

<p>세부 5일 APW178_KEA [베이비온] J파크 아일랜드</p> <p>총상품가 1,463,000원~</p> <p>현지차량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p> <p>●출발일: 3~6월 토/일/월요일</p> <p>왕구배개요인산부 방식 라텍스 중정 (세부 현지 중정)</p> <p>마사지 2회 포함 (에코하프데이스파, 전신마사지)</p>	<p>보라카이 5일 APW112_E 리전사리군 리조트</p> <p>총상품가 1,180,000원~</p> <p>현지차량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p> <p>●출발일: 3월~6월 일/월요일</p> <p>호핑투어/왕제마사지 / 디올투어 / 세일링보트 / 버그카 / 커피맛이사자스크림 포함</p>
--	---

**[하나TV쇼핑] 코사무이 W 리조트 6일**

코사무이W

총상품가 1,900,000원~

현지차량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3월~6월 토/일/월요일

W 리조트 내 디너 업그레이드 / WOO BAR 음료 제공(미국 어디서나 1GB 데이터 사용가능한 U-SIM 제공)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 내역 및 금액,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